Computer Vision Assignment

202011203 정은호

Problem 1)

공통된 전처리 과정은 다음과 같다. 입력 이미지를 그레이스케일로 변환한다. 이후 픽셀값이 0 또는 255 인 점노이즈를 대상으로 미디안 필터링을 적용하여 갑작스럽게 튀는 픽셀 값을 주변의 중간값으로 대체한다. 이후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스무딩함으로써 불필요한 미세한 노이즈들을 더 줄이고, 엣지 추출 시 생길 수 있는 잡음을 최소화한다. 마지막으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수행하여 이미지의 전반적인 명암 대비를 향상시킨다. 전처리 후, 엣지 추출은 두 가지방식 중 하나로 수행된다.

버전 0: Sobel 연산을 통해 수평 및 수직 방향의 그래디언트를 계산하고 이를 정규화하여 엣지 강도를 얻는다. 이후 Gamma 변환을 추가로 적용하는데, 이는 약하거나 중간 정도의 엣지 강도를 비선형적으로 증가시켜 대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. 이 방식을 통해 선명하고 뚜렷한 엣지 표현을 얻을 수 있었다.

버전 1: Sobel 연산을 통해 얻어진 그래디언트 강도를 별도의 변환 없이 그대로 사용한다. 이 방식은 원본이미지의 엣지 강도 분포를 자연스럽게 유지할 수 있으며, 엣지의 강약이 시각적으로 그대로 반영되도록 한다. 이 방식을 통해 원본 이미지의 구조적 특성에 충실한 엣지 표현을 얻을 수 있었다.

결론적으로, 버전 0은 보다 선명하고 강조된 엣지를 원할 때, 버전 1은 자연스럽고 원본에 가까운 엣지 표현을 원할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. 다음 첨부된 두 사진은 각각 버전 0,1의 실행 결과이다.



Problem 2)

Problem 1 과 마찬가지로, 입력 이미지는 먼저 그레이스케일로 변환된다. 이후 등장하는 salt-and-pepper 노이즈는 미디안 필터링을 통해 효과적으로 제거해준다. 이 상태에서 곧바로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면, 이미지 배경에 대각선 방향 의 흑백 체커보드 패턴이 발생하여 자동차 원본 이미지의 품질을 저해하는 현상이 발생한다. 이는 이미지 내에 대각선 방향으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. 따라서 푸리에 변환된 이미지에서 중심기준으로 (±5, ±5)에 위치한 주파수 성분을 0 으로 제거함으로써, 해당 반복 패턴을 억제할 수 있다. 이후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하면, 이전에 보였던 체커보드 배경이 말끔히 사라지고, 자동차 이미지가 보다 선명하게 복원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.

아래 첨부된 두 이미지는 각각 주파수 성분을 제거하지 않고 히스토그램 평활화를 적용한 결과와, 주파수 성분 제거 후 동일한 평활화를 적용한 결과를 보여준다.

